

주간동아 2010년 7월 13일

PEOPLE & PEOPLE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

11년째 중국서 의료봉사 생명 살리는 '보람'에 산다

● “의료와 봉사는 국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경계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는 2000년부터 중국 곳곳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00여 명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김 교수는 6월 14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시에서 우의상을 수상했다. 우의상은 중국 정부가 문화, 교육 등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의 상이다. 흑룡강성에서 외국인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수교 뒤 중국에 갔는데,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중국 어린이들이 안타까웠어요. 2000년부터 1년에 5~6번은 중국에 가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조선족도 있습니다. 조선족 아이들 특유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누런 종이에

깨알 같은 손글씨로 고맙다고 편지를 써주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중국의 부모들도 고맙다고 연신 절을 하며 김 교수와 한국에 감사를 표한다. 김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 함께 하는 의료봉사 활동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구실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 심장병 환자에게도 의료봉사를 한다. 한 중국인은 김 교수가 정말 고맙다며 평생 한국 옷만 입고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중국에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데도 열심이다.

“중국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 의료기술이 우리에게 비해 20년 정도 뒤처집니다. 수술을 대신 해주면 한 생명을 살리지만, 중국 의료진에게 의료기술을 가르쳐주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한국과 중국 의료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박훈상 기자 tiger@donga.com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

백혈병 치료 25년 외국서 더 명성



지호영 기자

●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백혈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지난 25년 동안 백혈병의 연구와 치료에만 전념했다. 그는 2001년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국내 도입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자로 발돋움했다. 글리벡은 도입 당시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최초의 표적항암제다. “글리벡 이전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평균수명이 길어봐야 3~5년이었죠. 하지만 글리벡을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25년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글리벡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했다. 세계 최초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글리벡 처방 기준을 세우는 한편, 가톨릭대 분자유전학연구소에서 최근까지 36명의 아시아 의사, 과학자에게 선진 백혈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전수했다.

그런 그가 요즘에는 차세대 표적항암제 개발에 중추적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글리벡 개발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의 임상연구에 발 벗고 나선 것. 글리벡과 타시그나를 직접 비교한 제3상 임상연구는 세계 최초이자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였다. 그는 이 연구에 서울성모병원 환자 30명을 등록시켰는데, 이는 단일 의료기관 참여 규모 중 세계 최대다. 환자 등록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임상시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

“임상연구는 제가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심도 있고 앞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지만, 이보다 더 보람된 것은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으로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이번에 임상을 진행한 타시그나는 글리벡을 넘어서는 강력한 치료효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새로운 표준치료제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교수의 타시그나 임상연구 결과는 학계 최고 권위지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논문으로 게재돼 주목받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를 바탕으로 타시그나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내줬다. 그는 이 논문에 제2 저자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지호영 기자